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2월 뉴스레터 vol. 4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오이코노미아, 어머니 그리고 에머슨

채우고 비우고 미리 준비하는 이별의 소중함

장래 후기 슬픔은 함께 나누자

안부를 묻다 햇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최정동 조합원

숫자로 보는 채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조합 소식 백기완 선생 사회장 지원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 피켓 참여 이벤트



작은장례 캠페인 지지피켓 참여 이벤트

캠페인 페이지에서 **지지피켓**으로 참여해주세요

피켓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중 매달 10분을 추첨하여
참든건강과학 건강즙 1박스 (제품 랜덤)를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하기



www.charmden.com

오이코노미아, 어머니 그리고 에머슨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사무국을 한동안 바쁘게 했던 대관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되었습니다. ‘공간 채비’가 썰렁해졌습니다. 애태우던 사무국 직원들이 ‘1인 대관’ 아이디어를 내서 온라인 광고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약이 잡혔습니다. 마침 제가 사무실에 있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신기한 듯 둘러보다가 묻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 얼마나 반가운 질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등등을 채비 노트, 브로슈어를 드리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군요. 제가 찾던 바로 그곳이군요!”

사연인즉, 예전에 아버지를 보내드렸고, 또 얼마 전에 누이를 보내면서 기존 장례식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바로 우리의 채비장례가 자신이 바라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너무 반갑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뭐...사장은 아니고요, 여기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합니다. “보통 카페나 장례식장에서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손님하고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는데 참 다르다고 느꼈고 말씀이 진실하여 좋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다시 올 테니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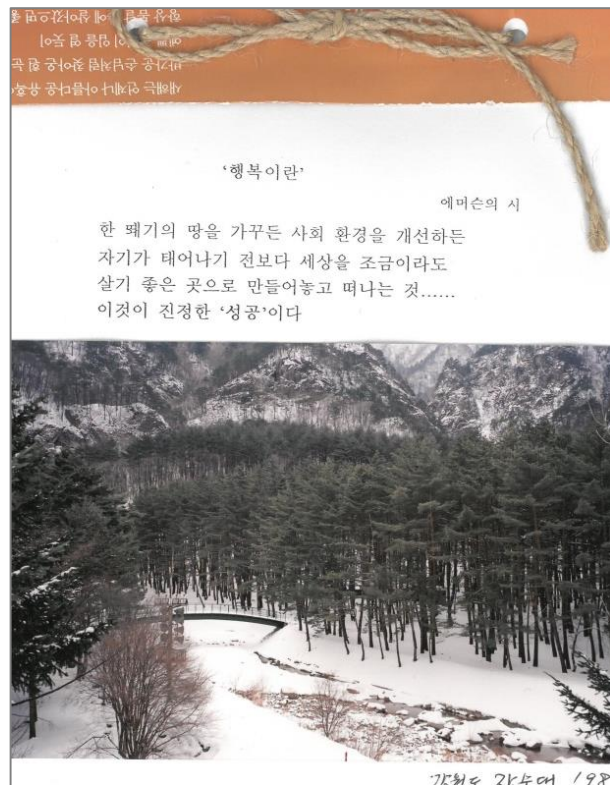
제가 이날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었나요?

그전에 회사에서 일할 땐 오로지 수익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간 대비 성과와 효율을 따졌습니다. 개인과 조직 전체가 얼마를 버는가를 분석했고 성과가 없는 일은 비효율로 분류해 없애며 성과에 따라 저(底)성과자와 고(高)성과자로 분류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서비스 또한 수익에 연결되느냐를 시간 단위, 행동 단위로 분석하고 판매원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지요. 예를 들어 손님이 신발을 고르면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은 후 두 손에 약간 힘을 주어 발 전체를 감싸 안고 눈을 마주 보며 “편안하시죠?”라고 말하는 게 판매 포인트입니다. 큰 신발은 깔창을 서비스로 주어 팔고 작은 신발은 딱 맞게 신는 게 유행이라고 말해서 팝니다. 손님은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손님은 무조건 입어보게 하여 판매로 이어갑니다. 재킷을 사면 온갖 미사여구로 속옷이나 바지를 판촉 하며 하다못해 양말이나 벨트, 모자 등 액세서리 추가 판매로 연결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누가 친절을 베풀면 ‘뭘 또 팔아먹으려고 하나’ 하며 방어태세부터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 행동은 비효율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제라고 번역되는 이코노미 (economy)란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나요?

이코노미는 그리스어로 'Oikonomia'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질서, 법률'을 뜻하는 'nomos'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경제는 원래 '가정살림'이자 '살림살이'였고, 집안 살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돈벌이 즉 재물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을 크레마스티케(획재술, Krematistike)라 하여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한 '오이코노미아'와 명확하게 구별했지요. 우리 시골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텃밭을 가꾸어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일,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일,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거나 함께 노는 일처럼 살림살이에 너무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코노미, 즉 경제활동인데 이게 근자에 들어와선 전부 화폐교환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 돈벌이 활동만 경제활동으로 취급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골 어머니의 텃밭 작물 대신 새벽 배송을 선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는 대신 체육 과외나 놀이교실로 보내고 그 돈을 벌려고 아이들을 멀리하고 일만 합니다.

저는 이 날 몇 시간 들여서 커피 포함, 겨우 8천 원 벌었으니 크레마스티케 관점에서 정말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운명인지 한 사람을 만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지, 좋은 삶을 위해 장례문화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논했으며 그 결과 우리 가치에 의기투합하는 조합원 한 분이 늘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벌이에만 집중했다면 돈도 벌지 못했을 뿐더러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면 효율과 성과 추구는 물론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생활과 삶을 회복시키는 진짜 '이코노미'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뒤 그 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어머니는 제게 에머슨의 시를 주고 가셨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몇 조를 기부하며 좌우명으로 삼았다 하여 인구에 회자된 그 시 말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어머니가 주신 에머슨 시가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한 뼤기 땅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미리 준비하는 이별의 소중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1988년 햇살이 아주 밝았던 5월의 토요일 아침, 평소에도 잘 하지도 않았지만 그날따라 출근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나누었던 짧은 인사는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다.

그날 늦은 오후, 평소 왕래가 잦았던 아버지의 친구분이 혼자 집에 있던 나를 찾아와 아무런 설명 없이 나를 어딘가를 데려갔을 때, 나는 불길한 예감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병실이 아닌 건물 뒤편 장례식장으로 안내되었고 그때 내가 만난 것은 제단 위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다. 어머니와 형은 이미 빈소에 도착해서 슬프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는 말과 오열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다.

아버지는 지인과 함께 결혼식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손쓸 수도 없게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혼란을 수습하기까지는, 그 슬픔을 진정하고 금기와도 같았던 그때를 다시 이야기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까지는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였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은 장성하여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의 나이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이별한 나이 정도가 되자, 그 두 아들은 아버지와와의 추억들을 끄집어 내며 다시 그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내가 그 나이가 됐어.”

멈추어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나이를 형이 넘으면서 나한테 한 말이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나도 그 나이를 넘어버렸다.

이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만일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난 아직 죽음과 이별에 대해 아무 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아이들과 아내에게 해줄 것과 할 것이 아직 많은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아니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내가 지금은 ‘미리 준비하는 작고 아름다운 이별’ 채비장례 홍보를 맡고 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장례가 발생하면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식을 기획한다.

추모식을 기획하다 보면, 추모영상 제작을 위해 고인의 생애에 관련한 사진을 받아 편집할 일이 종종 있는데 받은 사진들의 대부분은 가족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사람의 성장과 사랑, 추억과 기쁨... 결국 이별로 마무리되는 영상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분의 일생이지만 마치 가족이 된 것처럼 울컥할 정도의 슬픔을 느낄 때가 많다. 그 슬픔은 그 가족을 위로해 주는 것이기도 해서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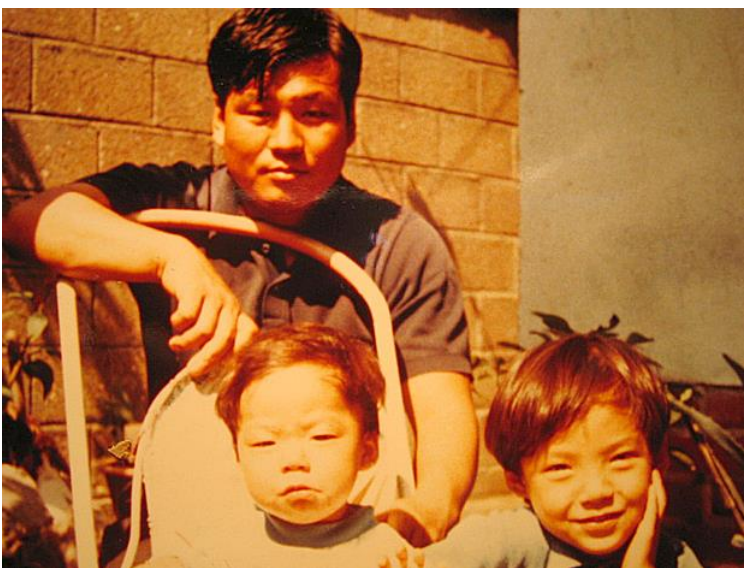
‘작별’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고, ‘이별’은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이별’이 아닌 ‘작별’할 수 있는 장례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한겨레두레에서 하는 일이다

올해 아버지의 기일에는 50년 동안 한번도 쓰지 못했던 편지를 써볼 계획이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나만의 작별 인사를 위해서. ✨

김기혁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홍보팀장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슬픔은 함께 나누자



임흥달 개인기부자 지정기탁-무연고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을 마치며

존엄하다는 것은 ‘높고 엄숙함, 높아서 범할 수 없음 신앙의 대상이나 절대자의 위력에 압도되어 엄숙하고 경건해지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존엄하게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 앞에서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죽으면 그만인데. 나는 한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놓는 말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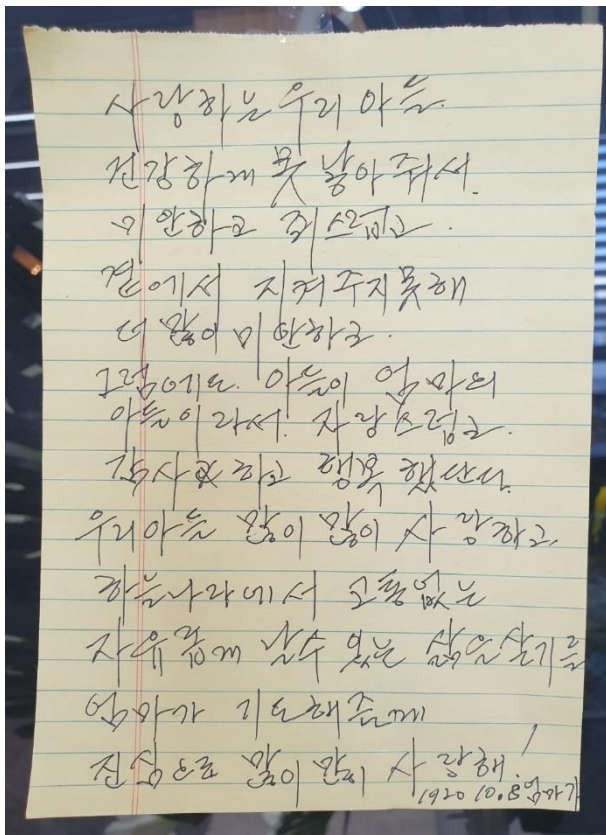
창립 이래로 우리 조합은 존엄한 죽음에 관해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존엄한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람 수만큼이나 넓은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죽음과 추모였다.

그들은 홀로 죽거나, 죽어서도 계속 혼자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에 관심을 두는 이는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거나 생전에 그를 보살피던 지역의 단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고인과 생전에 일면식이 있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큰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교류가 없는 이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요구할 수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슬픔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담당자에게 그의 죽음을 존엄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은 가혹한 일 같았다. 그것은 무심하고도 반복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매번 어떻게든 치러보고자 하는 내 의지는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마음만으로는 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돈 없으니 죽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말은 얼마나 웃픈 표현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도 그런 세상은 만들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것을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추모(장례) 지원사업’으로 만들게 되었다.

서울조합은 돈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2013년부터 저소득층의 장례(추모)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것으로 이론 성과는 돈의동 쪽방촌에서 추모관을 만들어 홀로 죽어간 이를 추모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안정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MOU를 맺고 서울형 추모 지원 시스템 ‘그리다’ 사업을 완성시켰다. 무연고와 저소득층의 추모(장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됐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류상으로 표기된 가족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증이 없어서 장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즈음 임종한 조합원이 아버님을 보내며 받은 조의금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 조합에 기부했다. 우리 조합은 <2018 임흥달 개인 기부자 지정기탁-무연고 저소득층 장례지원 사업>을 통해 이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덕분에 추모(장례) 지원 사업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품위 있게 보낸다는 말은 살아있는 이들의 단어일 것이다. 좋은 장례 용품을 쓰거나 쾌적한 빈소 안에서 고인을 보내는 것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품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떠나며 다른 이들의 죽음까지 챙겨준 임흥달(임종한 조합원의 아버님)님이야말로 이 단어를 가질만한 분이 아닐까. 존엄하고 품위 있게 떠난 그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알 수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잘 지내고 있으시죠? 덕분에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을 다시 한번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다. 슬픔은 함께 나누자.✽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장례 지원 사업에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금 계좌: 131-015-926211 신협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햇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최정동 조합원

‘안부를 묻다’는 우리 조합원을 만나 삶의 현장과 희망을 얘기하는 2021년 신축년의 새 연재 코너입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 힘들고 거친 세상을 건너고 있을까. 지금, 만나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68. 전날 내린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다. 솔라테라스 사옥 2층에서 바라보는 설경이 기막혔다. 북한산 정수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베란다에 설치한 코발트빛 미니 태양광 패널들도 반짝거렸다. 인버터 LED 창에 실시간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이 표시되고 있었다.

2017년 2월 28일 설립한 스타트업 솔라테라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보급하는 대표적인 벤처 기업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전국 미니 태양광 시공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설치와 확실한 사후 서비스(AS)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을 이끄는 최정동 대표. 4년 전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겨레두레)에 가입한 그는 열정과 패기 넘치는 청년사업가이다. 장남인 그는 한겨레두레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시작한 직장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평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창업교육을 들으며 여러 가지 창업아이템을 시도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뭘 해도 되지 않는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뭘 해도 안되는구나 하고 비관하지 않고, 지금이 지나가면 뭘 해도 되는 때가 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창업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2016년이 되었을 때 태양광 발전시장에서 기회를 발견하였다.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높아진 유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태양광 제조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그 이후 유가가 떨어지면서 태양광모듈의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때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바로 뛰어들진 않았다 이미 몇 차례 시행착오도 경험했고, 무엇보다 현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양광 ‘취업’이라는 검색된 업체들에 전화를 하면서 일을 구직을 하였는데 그 중 한 회사에서 미니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서 태양광 업계 중에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2017년에 미니 태양광 거치대 자재를 공급하는 솔라테라스를 창업하고 다음 해에는 전기시공 자격을 갖춘 후 서울시에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 시공업체로 공식 지정됐다. 한데 정부가 나서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자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2017년에 8개였던 서울시 미니 태양광 업체가 2018년에는 18개가 되었고, 2019년에는 5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시작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업체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과열이 되었고 업체 간의 생존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쟁상황에서 솔라테라스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갔다. 일단 거치대의 효율성을 높여서 쉽고 빠르게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정성을 높여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하였다. 그리고 영업직원에게 대한 대우를 더 좋게 하고, 최대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라테라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당장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속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재를 솔라테라스와 함께해 주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솔라테라스는 지난해부터 차세대 수익모델로 ‘포터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력망을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오지의 경우에는 전기의 혜택을 보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간편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저개발 국가의 오지에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태양광 전력 공급장치를 개발해 줄 수 없냐는 의뢰를 받았어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서 가정용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적절한 가격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제품은 매우 고가이고, 중국산은 성능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농막이나 컨테이너, 전력망이 없는 오지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 대표는 사업은 절대 대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표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원이 성장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직원들 덕분에 회사가 성장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기업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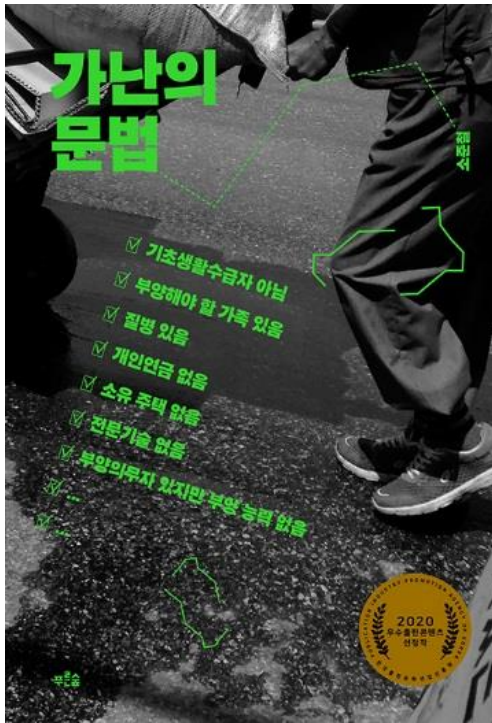
“이 사업은 저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상적으로 다가오지요. 난관에 부딪힐 때면 왜 기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설치문의: 1566-3221, www.솔라테라스.com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도시에서 가난한 노인으로 늙는다는 것



가난의 문법

소준철 저/푸른숲

「가난의 문법」은 생애 목표를 내조와 자녀 양육으로 삼아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기회를 잃었던 여성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어떻게 재활용 수집 노인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영자 씨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해 생애를 추적한다.

그는 매일 재활용품을 주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닌다. 종일 이동하는 거리는 버스로 열댓 정거장쯤 된다. 길 위에 있으므로 재활용품을 모으는 사이 화장실이 급해도 갔다 오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참는다. 수레를 그대로 길거리에 뒀다가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도난 당하는 일을 종종 겪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참고 집에 돌아와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

고단함이 영자 씨의 삶을 채우지만 슬플 겨를도 없이 밤이 찾아온다. 파스조차도 아껴가며 붙인 밤은 오롯이 통증에도 집중할 수 없다. 혹여 주워놓은 재활용품을 도둑맞을까 불면의 밤을 보낸다. 불면과 통증이 매일 이어진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애써 모은 재활용품이 경제 상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영자 씨의 가난은 그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삶이 아니다. 공간의 변화나 재개발 등 사회의 변화 과정에 휘말려 선택된 삶이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는 지금껏 자신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했고, 개인은 힘 없이 살 방법을 궁리하며 일어섰다.

「가난의 문법」은 재활용 수집 노인 영자 씨의 생애를 추적해 그 현상을 열거하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지 노인들을 선별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기회를 주는 식의 땀질 복지로는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불행을 막을 수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 골목길에서 수레를 끌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걷고 있는 지친 영자 씨와 마주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기본소득으로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요원한 것일까. 「가난의 문법」은 이 문제를 더는 미루지 말자고 한다. 나는 많은 이가 이 책을 읽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소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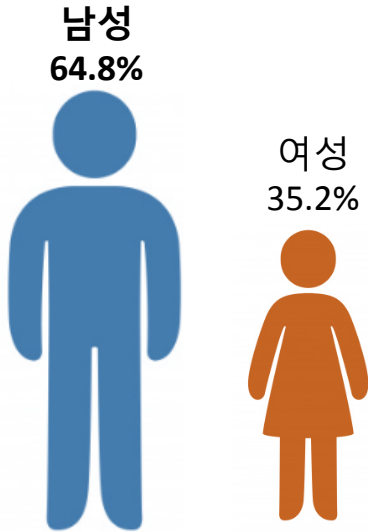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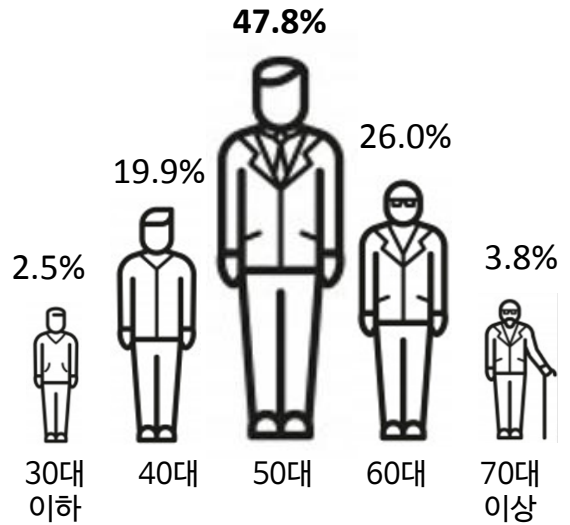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 2976명의 정보를 분석해보았습니다 (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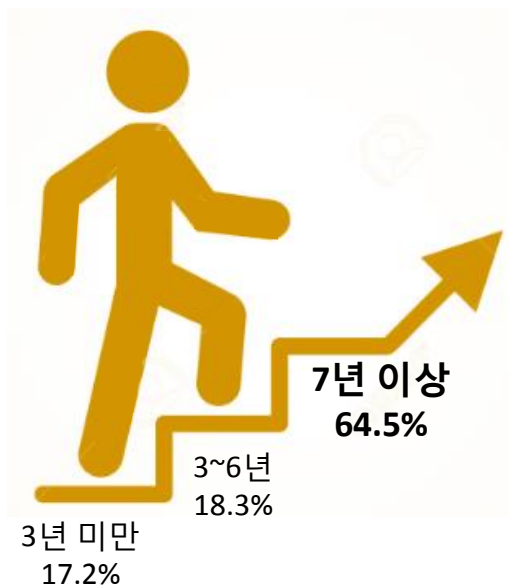
1 성별
3명중 2명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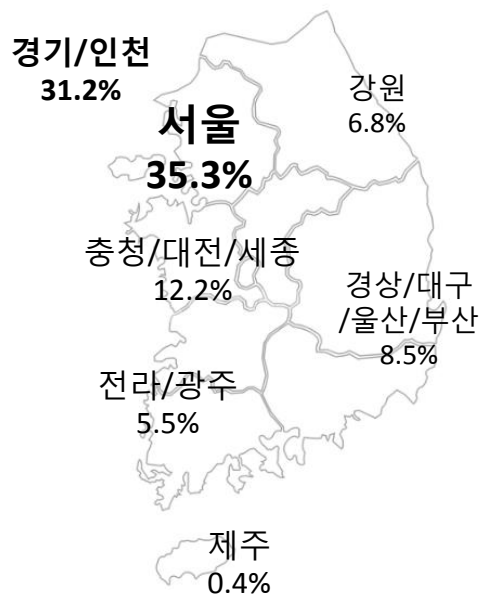
2 연령대
2명중 1명은 50대



3 조합원 경력
3명중 2명은 7년 이상 조합원



4 거주지역
3명중 2명은 서울/경기/인천



백기완 선생 사회장 지원

"너도나도 일하되 모두가 올바르게 잘사는 세상"

백기완 선생이 남긴 최후의 글귀는 '노나메기'의 뜻입니다.

평생 민중·통일운동에 헌신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4시45분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장례를 지원한 이번 사회장은, 오일장으로 치뤄져 2월19일 대학로에서 노제를 지낸 후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2021. 1월

전현근 조합원 모친상
장교순 조합원 부친상
조수경 조합원 모친상
이애경 조합원 부친상

남궁성태 조합원 부친상
김금옥 조합원 시부상
고영빈 조합원 부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부상

유수강 조합원 시모상
고준환 조합원 부친상
문성만 조합원 부친상
윤활식 조합원 본인상

2020. 12월

이승철 조합원 빙모상
김유중 조합원 모친상
송관용 조합원 모친상
왕영술 조합원 부친상
추모지원: 주덕용님, 강제윤 부친상

김미경 조합원 손녀상
김현하 조합원 모친상
김숙영 조합원 시부상
한승동 조합원 조카상

이복순 조합원 시부상
백찬홍 조합원 빙모상
박영규 조합원 모친상
방성환 조합원 부친상

2020. 11월

박은선 조합원 부친상
방승범 조합원 부친상
김수정 조합원 부친상
정상영 조합원 빙모상
김범석 조합원 부친상
이정환 조합원 부친상
송착석 조합원 부친상

조태진 조합원 조모상
노원희 조합원 자매상
류락규 조합원 부친상
김의선 조합원 모친상
이무웅 조합원 배우자상
문경은 조합원 부친상

이준희 조합원 모친상
김재훈 조합원 모친상
이옥경 조합원 부친상
이해원 조합원 자매상
이경희 조합원 배우자상
신철승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제 32호 |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제 33호 |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제 34호 |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제 35호 | [24%의 기적]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채우고 비우고]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장례 후기]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제 36호 | [24%의 기적] 협동조합도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우고 비우고] 애도에 관하여
[장례 후기] 친구의 새로운 여행길이 가볍기를



제 37호 | [24%의 기적] 두 마리 토끼 잡는 협동조합의 사업 원칙
[채우고 비우고]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장례 후기] 저부터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38호 | [24%의 기적] 길이 보이지 않거든 조합원에게 물어보라
[채우고 비우고] 보통 사람들의 장례
[장례 후기] 장례가 두렵고 채비를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제 39호 | [24%의 기적] 위기를 탈출하는 두 가지 방법
[채우고 비우고] 이별할 시간이 필요하다
[장례 후기] "아버지, 더는 외롭지 마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